

# 지역주민과 함께 '나눔결사' 실천

## 불교문화사업단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선행 결사'가 각처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문화사업단이 나눔 결사를 위한 장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결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여서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스님)은 오는 9월4일 오전11시부터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 일원에서 '양천구민과 함께 하는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양천구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 나눔 그리고 공감'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 9월4일 서울 국제선센터서 '사찰음식 나눔·공감' 개최 불자연예인 소장품 경매도

이렇듯 이번 행사에는 사찰음식과 나눔이 풍성하다. 국제선센터 일요일회가 끝나는 오전11시부터 금당사찰음식문화원장 대안스님의 사찰음식 대중화 강연으로 행사가 시작된다. 이어 지역주민 400여 명에게 사찰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나눔 행사, 특히 경매와 알뜰 장터는 불교와 사찰만의 결

사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결사의 마당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나눔 경매'에는 스님과 불자 연예인의 소장품 100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오후1시부터 1시간 동안 국제선센터 특설 부스에서 열리는 경매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스님의 서예작품, 제14교구부사 범어사 주지 정영스님의 선화, 조계종 총책특보단장 정범스님(양양 낙산사 한주)의 낙산사 동종모형 등 스님들이 내놓은 소장품과 함께 가수 장윤정 씨의 사인 모자, 가수 토니안의 무대의상, 방승인 김병조·고두심 씨의 부채, 한복디자이너 박솔너 씨의 한복 등이 경매 물품으로 등장한다.

알뜰 장터에는 모두 8개 부스에서 불서(佛書)와 범복, 불교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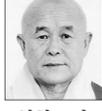
판매한다. 연우와함께, 조계종출판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아름다운동행 등 단체가 참여하며, 대안스님의 도서 사인회와 기부 모금함이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나눔 결사 행사로 얻은 수익금은 양천구청과 아름다운동행에 행사 당일 전달된다. 지역 청소년 소외계층 지원과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육성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단장 지현스님은 "이번 행사는 종단의 5대 결사 중 하나인 나눔 결사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기획됐다"며 "올해 국제선센터에 개원한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공감'을 이용하는 양천구민들에게 우선 회향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8월19일·23일 중무회의 결과)

 수현스님 울주 빈아선원	 현능스님 광양 보광사	 법정스님 부산 용주사	 정유스님 용인 장경사
 원영스님 경산 하양포교당	 자성스님 울진 보광사	 법륜스님 상주 서진암	 선우스님 영주 진월사
 청학스님 광주 무각사	 덕운스님 서울 결상사	 행관스님 제주 원법사	 탄봉스님 제주 범륜사

## 연구 취약분야 장학금 지원한다

조계종, 초기불교 계율 등 장학금 선발  
면접심사 추가... "중단 필요한 인재발굴"

국내의 대학원에서 초기불교, 계율, 불교사, 응용불교학 등 취약한 분야를 전공한 스님 또는 수학을 희망하는 스님에게 종단이 장학금을 지원한다.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스님, 동국대 교수)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15일부터 10월28일까지 2012년 종단 장학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할 장학금 전공은 불교학, 응용불교학, 불교문화 등 세 분야로, 이미 많은 연구자가 배출된 대승불교와 선불교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가능한 전공분야는 초기불교, 율장 청구 법학을 포함한 계율, 근현대 한국불교사, 범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 불전언어 전공을 비롯해 생명 생태 불교윤리학, 불교사회학, 비교종교학, 철학일반, 불교심리학, 사회복지정책 분야와 유무형 불교문화 등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석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스님은 물론 국내 진학 및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스님들이다. 선정인원은 5명 이상 9명 내외로, 장학금으로 선정된 스님은 해당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학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면접심사가 추가돼,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며 해외 유학승의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방침이다. 최종결과는 12월9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장학위원장 보광스님은 "종단 장학금 제도는 일회성이 아닌 해당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장학제도로, 종단이 필요한 학문 분야의 인재를 발굴해 불교발전과 더불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효과가 있다"며 "국내외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스님들이 많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kto@ibulgyo.com

##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한마음'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세속적으로는 저도 강원도 출신이라 더욱 더 반갑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지역인사인 강원일보가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격려인사를 건넸다. 이희종 사장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강원도의 자랑"이라며 "도민의 열정이 대단한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종 사장은 강원일보가 발행한 <강원문화총서>와 <강원연감> 등의 도서를 비롯해 강원도 특산물인 보리고추장과 육단주,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2일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의 예방을 받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에 대해 격려하며 향료를 선물했다. 삼나물 등을 선물했으며 총무원장 스님은 향료로 화답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사서실장 심경스님과 총책특보단장 정범스님(양양 낙산사 한주), 미디어특보 장적스님(불교신문 주간), 강원일보 최병수 편집국장, 남궁현 문화부장 등이 배석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 문화재 약탈 미화하고 싶은 일본

### 현장에서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조선왕조의 폐에 대한 일본인의 칼럼을 읽었다. 내용인즉,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는 어랍용(御覽用)이나 유일본(唯一本) 등 가치가 높은 의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일본 궁내성에 있는 의례는 똑같은 책이 4권 이상 있는 것 중 1권을 소장한 것으로, 귀한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란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며 덧붙여 "한국은 반환 경로도 불분명한 모든 해외 유출 문화재를 약탈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아했다. 왜 실렸는지에 대한 의문은 차지하고, 글쓴이의 의도가 궁금했다. 혹시 그는 귀한 책을 약탈해간 프랑스보다 똑같은 책 여러 권 중에 한 권을 가져간 일본이 낫다고, 아니면 일본을 약탈자 취급한 게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을까.

문화재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7만4434점에 달한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3만5000여점이 일본에 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문화재까지 포함하면 30만 점을 넘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대다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



어현경 기자 eonakto@ibulgyo.com

본으로 넘어갔다. 여러 권 중에 한 권을 가져온 궁내성의 조선왕조의 폐역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조선총독부가 우리 문화재를 일본으로 반출해간 것이다.

일본 오쿠라 호텔에 있는 이천 망현산 오층석탑도 마찬가지다. 이 탑역시 조선총독부가 반출한 것이다. 얼마 전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와 문화재재단이 석탑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오쿠라 호텔은 "약탈"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고 한다. 적반하장이다. 피식민국이 식민지의 문화재를 억지로 빼앗아간 것이 약탈이 아니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한국의 해외 유출문화재를 약탈문화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그의 지적은 반성언어 현실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본인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식민지에서 문화재를 반환해간 행위는 어떤 이유를 대도 미화될 수 없다. 그가 언급한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란 권력을 이용해 강탈해간 일제강점기 과거사를 후대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 제6기 중무행정강좌 개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오는 10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6기 중무행정강좌'를 개설한다. 본·말사 중무원들의 중무행정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중무원력을 양성하기 위

한 이번 강좌는 중무행정 이해, 정채성 확립, 사찰교무행정, 회계관리 실무, 사찰문화재 및 봉사관리, 자원봉사 활동관리 등을 주제로 한 강의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오는 9월16일까지 우편과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총무원 총무부에 접수하면 된다. 박인택 기자

## '호주 정법사' <1면에 이어>

또 2007년 8월 창건주 권한을 위임 받은 전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이 지난해 건물 한 동을 구입하는데 힘이 되어 주었다고 소개했다.

현재 정법사에는 매 주 일요일마다 150여 명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인동포 2세를 위한 한글교실을 비롯해 중고등부를 위한 밴드활동, 청년회 봉사부, 중·장년층의 정법사랑 모임 등을 운영하며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서스님은 "그동안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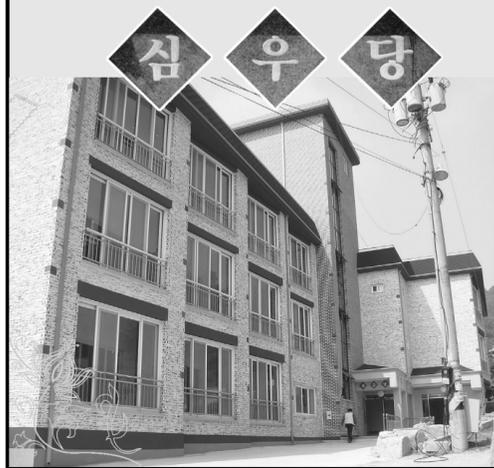
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신고가 들어 올까봐 주변 시선을 의식하느라 크고 작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향후 이곳에 문화센터를 열어 외국인도 비불자들에게도 한국불교를 알리는 한편 전통 사찰이 들어설 수 있도록 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심우당 환공(입주자 모집)

열반에 들 때까지 모든 서비스!!!  
노스님과 신심 돈독한 노보살님을 모십니다.

씨는 오늘부터 보리들 이룰 때까지 많은 존장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일시키겠습니다. - 승만경 -

자제공덕회가 그동안 쌓은 복지노하우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후복지시설' 심우당을 건립하였습니다. 평생 수행과 중생교화에 진력하신 비구니 노스님들과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삼아 살아오신 노보살님들을 편안하게 모시고자 합니다. 심우당에 입주하는 모든 분들은 열반에 드실 때까지 자제공덕회에서 책임지고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와 특별한 인연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심우당 입소 안내**
- ◎입소인원 : 비구니 노스님 및 노보살님 : 00명
  - ◎생활실 : 1인 1실
    - 약10명 규모: 화장실(욕실), 주방(싱크대), 불박이장, 베란다 외
    - 편의시설 : 식당, 옥상정원, 거실 겸 차실, 물리치료실, 의무실
    - 10분 거리에 남양시내(시청, 병원, 마트 외)
    - 열반하실 때까지 수발 지원
  - ◎문의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627
    - 연락처 : 031-356-9230, 011-228-6927
  - ◎입소 예정 : 2011년 8월부터 ~
  - \*선착순 접수 중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 봉암사 원로 월봉대선사 영결 다비식에 대한 감사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8월 22일(음7월23일)에 원적하신 월봉대선사 영결 다비식을 8월24일 봉암사에서 산중장으로 엄숙히 봉행 하였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찾아주신 제방의 여러 스님들과 각계 인사 불자님들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우리 봉암사 대중들은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열심히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지면으로 감사인사 올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재 안내**

초재	불기2555년 8월 29일(음8. 1)	봉암사
2재	불기2555년 9월 5일(음8. 8)	봉암사
3재	불기2555년 9월 12일(음8.15)	봉암사
4재	불기2555년 9월 19일(음8.22)	봉암사
5재	불기2555년 9월 26일(음8.29)	봉암사
6재	불기2555년 10월 3일(음9. 7)	봉암사
7재	불기2555년 10월 10일(음9.14)	봉암사



대한불교조계종 중립선원 봉암사  
수좌 적명 주지 원타 상좌 효각 합장